

주간 증시 브리핑

2026.8.24(월)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Executive Summary

- **[증시요약]** 지난 주 코스피는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주주환원 계획(SK하이닉스 40조원 자사주 소각)**과 **美 베센트 재무장관의 장기국채 바이백 계획**에도 불구하고, 금리 상승 우려(美 30년 5.28%, 10년 4.74%)로 반등 한 주 만에 하락함 (6,912p, 주간 -64p, -0.9%). 코스닥은 3주 만에 큰 폭으로 하락함 (801p, 주간 -7.2%). **원달러 환율은 11개월 만에 1,400원대를 하회함(8/21일, 1,388원).**
- **[해외증시]** 美 S&P500은 Open AI의 7월 매출 실망과 월마트 실적 부진으로 하락함 (주간 S&P500 -1.4%, 나스닥 -2.5%). 닛케이도 3주 만에 하락함 (주간 -3.9%). **中 본토증시는 유니트리 주가 급등(상장 당일 +460%)에도 자금 쏠림 우려로 하락함.** 반면 **홍콩증시는 달러 약세 속에 상승함 (상하 -0.5%, 홍콩 +3.5%).**
- **[시장전망]** 반도체 업체들의 주주환원 계획은 국내 기업들과 증시의 체질 전환을 알리는 신호가 될 수 있음. 국내 주식시장 밸류에이션 하단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장기금리를 둘러싼 우려로 증시 회복 속도는 완만할 전망.
- **[주요일정]**
 - ① 美 7월 PCE물가지수(8/26일)
 - ② 韓 8월 금융통화위원회(8/27일)
 - ③ 美 잭슨홀 심포지엄(8/27~29일)
 - ④ 美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지수(8/25일)
 - ⑤ 日 8월 도쿄 소비자물가지수(8/28일)
 - ⑥ 美 엔비디아 실적발표(8/26일)

구분		8/21	1W	1M
KOSPI	↓	6,913	-0.9%	2.4%
S&P500	↓	7,674	-1.4%	2.2%
DOW	↓	53,277	-0.8%	2.0%
닛케이225	↓	66,016	-3.9%	-0.3%
상해종합	↓	3,905	-0.6%	1.1%
원달러(원)	↓	1,386.5	-2.2%	-5.9%
엔달러(엔)	↓	158.6	-0.4%	-2.5%
국고채3년(%)	↑	3.854	3.796	3.867
국고채10년(%)	↑	4.376	4.313	4.328
미국채10년(%)	↑	4.734	4.694	4.629
WTI(달러/배럴)	↑	87.1	5.7%	2.5%
한5-yrCDS(bp)	↓	22.3	-0.12	-0.6

CHART of the week

원달러 환율 추이



1 美 7월 FOMC 회의록 공개 (8/19일)

내부 분열 지속, 9월 동결, 연내 인상 가능성

- 美 FOMC 회의록에서 **연준 위원 다수(many)**가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을 경우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됨.
- 몇몇(several) 위원은 **물가 상승 압력이 광범위**하며 추후 **더 큰 긴축 위험이 있음**을 경고함.
- 경기 판단은 긍정적임. 실질 경제 활동이 견조하고 노동시장도 안정적이라 평가함.
- 워시 의장은 현재 연 **8회인 FOMC 회의를 연 6회로 축소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밝힘. 성명서 간소화 및 선제적 금리안내 (포워드 가이드) 폐기에 이은 **연준 체제 전환의 연장선**임.
- 7월 고용 부진 및 물가 둔화로 **9월 동결 가능성에 무게**. 그러나 연내 인상 가능성은 남아있음.

2 韓 SK하이닉스 40조 자사주 소각(8/19일)

AI 호황의 이익, 주주환원으로 전환 계기

- SK하이닉스는 40조원 규모 자기주식을 취득, **전량 소각하는 안건을 의결함**. 이는 발행주식의 3.3%로 국내 자사주 소각 규모로는 역대 최대임.
- 속도와 기준 모두 시장 예상을 상회. 환원 기준은 2025~27년 잉여현금흐름(FCF) 50% 범위 내에서 50% 이상으로 상환됨.
- 추가 환원(고정+특별배당) 규모와 방식은 10월 3분기 실적발표에서 공개 예정임.
- 삼성전자도 8/21일 특별현금배당 등 **최대 110조원 주주환원 방안 발표함**.
- 양사 합산 150조원 수준 환원 규모를 감안할 때 반도체 수출 모멘텀은 둔화되어도, 밸류에이션 하단을 강하게 지지할 수 있는 요인으로 판단됨.

3 美 부채 40조 달러 돌파, 재무부 바이백 (8/19일)

미봉책 우려, 장기금리 부담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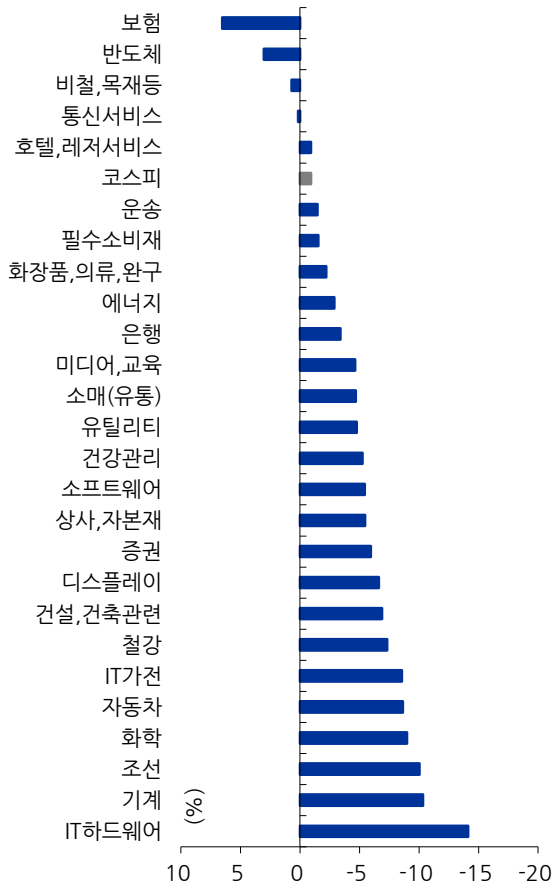
- 美 총 연방정부 부채는 40조 470억 달러를 기록. **사상 첫 40조 달러를 돌파**. 10년 전(19.4조)의 두 배를 넘어서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임.
- 7월 재정적자는 4,323억 달러로 21년 3월 이후 월간 최대, 올해(회계연도) 누적 적자는 1.8조 달러, **누적 이자비용은 연방예산 3위 지출 항목**.
- 법정 부채한도(41.1조)까지 1조 달러 남음. **부채한도 이슈가 재검토될 가능성이 높음**.
- 베센트 재무장관은 장기국채금리를 억제하기 위해 **바이백 규모를 회당 20억 달러에서 최소 2배인 40억 달러 이상으로 확대함**.
- 그러나 근본적인 재정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음. **당분간 장기금리 부담**은 이어지고, 美 달러에 대한 압박도 나타날 전망.

4 韓 채권시장 동향(8/18~8/21)

금통위 경계 및 재정 우려에 베어스텝 진행

- 국고채 3년물 금리 3.854%(+5.8bp), 10년물 금리 4.376%(+6.3bp) 마감.
- 주초 국제유가 급등을 시작으로 금통위 경계, 미국 장기금리 급등에 국내 금리도 베어스텝 진행.
- 주중 미국 재무부에서 장기채 바이백 규모 확대를 결정하며 약세 진정됐으나, 재정 우려에 따른 텀 프리미엄 상승과 불안한 유가 등으로 미국 및 국내 금리 이내 상승 전환.

주간 업종별 수익률(8/21 기준)



주요 경제지표 예상(8/24~8/28)

韓 금융통화위원회(8/27) → 금리 동결, 매파적 소통 예상

- 8월 금통위에서 한은은 기준금리 동결 전망(2.75%). 다만 매파적 발언으로 긴축 효과를 이어갈 것으로 판단
- 총재가 5월, 7월 금통위에서 인상 근거로 든 성장, 물가, 금융안정은 여전히 추가 인상을 필요로 하나 연속 인상이 필요할 만큼 상황이 악화되지는 않음
- 성장 요인은 별다른 변화가 없으나 물가는 7월 소폭 하향세 확인, 수요측 인플레이션(2.6%yoy)도 역사적으로 연속 인상이 필요한 수준은 아님
- 원달러 환율은 1,550원대에서 SK하이닉스 ADR 상장, 법인세 중간 예산 전 환전 기대로 1,400원 하향 돌파해 8월 인상 당위성 낮아짐
- 통화정책 여력이 제한적인 만큼 7월 인상 효과를 지켜 보며 매파적 소통만 유지하더라도 효과적일 것

美 7월 PCE물가(8/26) → 근원물가압력 높지 않을 전망

- 美 7월 CPI는 +0.1%mom, +3.4%yoy 상승하며 예상 부합. 에너지 물가는 전월비 -1.5% 하락했으나, 전년비 상승률(+14.7%)은 여전히 높은 수준 유지
- 미-이란 MOU가 만료되며 전쟁 장기화 국면 진입. 8월 美 전국 평균 휘발유가 갤런당 4달러 상회 이어지며 美 소비자 체감 물가 부담은 지속
- 다만 7월 PPI/근원PPI는 전월비 +0.0%/0.2% 상승, 예상(+0.2%/0.3%) 하회하면서 물가 우려 완화됨
- PCE에 반영되는 포트폴리오 관리비가 +6.5%mom 급등했으나 항공여객 서비스는 -3.4%mom 하락해 물가 상방 압력을 일부 상쇄할 것으로 보임
- 7월 고용-물가지표 발표 이후 시장이 반영하는 연준 9월 인상 가능성은 40%로 낮아짐(1개월 전 57%). 7월 근원 PCE는 0.2%mom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

주요 경제지표 발표

매크로 / 시장 이벤트

	주요 경제지표 발표	매크로 / 시장 이벤트
8/24 (월)		
8/25 (화)	- 美 S&P/CS 20개 도시 주택가격 (C: 0.2%mom, P: 0.15%mom) - 美 8월 CB 소비자 신뢰지수 (C: 90.2pt, P: 90.8pt) - 韓 8월 소비자심리지수 (P: 106.8pt)	[실적발표] 美 인튜이트
8/26 (수)	- 美 7월 PCE물가지수 (C: +3.6%yoy, P: +3.7%yoy) - 美 7월 근원 PCE물가지수 (C: +3.3%yoy, P: +3.3%yoy)	[실적발표] 美 엔비디아, 세일즈포스 -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HP
8/27 (목)	中 7월 산업생산 (P: +15.1%yoy)	- 美 잭슨홀 심포지엄(~29일) - 韓 8월 금융통화위원회 [실적발표] 美 마벨, 위크데이
8/28 (금)	- 日 8월 도쿄 소비자물가 (C: +1.9%yoy, P: +2.0%yoy) - 日 8월 도쿄 근원 소비자물가 (C: +1.7%yoy, P: +1.9%yoy)	美 잭슨홀 위시와장 연설

추천 종목

섹터/산업	종목/코드	편입가 (원) 편입 날짜	수익률	최근 1년간 차트	주요 실적 예상 & Valuation	투자 포인트																				
에너지	GS (078930)	119,300 (8/18일)	-2.6%		(단위: 십억원, 배) <table><thead><tr><th></th><th>25년</th><th>26년</th><th>27년</th></tr></thead><tbody><tr><td>매출액</td><td>25,184.1</td><td>28,661.3</td><td>28,133.2</td></tr><tr><td>영업이익</td><td>2,936.1</td><td>5,170.1</td><td>3,670.0</td></tr><tr><td>순이익</td><td>1,038.1</td><td>2,987.6</td><td>1,785.1</td></tr><tr><td>PER (배)</td><td>6.7</td><td>4.4</td><td>7.5</td></tr></tbody></table>		25년	26년	27년	매출액	25,184.1	28,661.3	28,133.2	영업이익	2,936.1	5,170.1	3,670.0	순이익	1,038.1	2,987.6	1,785.1	PER (배)	6.7	4.4	7.5	- GS AI인프라(100% 자회사)를 통한 AIDC(강원 동해) 1.2GW 1단계 개발 계획 및 총 2.4GW 규모의 중장기 목표 구체화 - 호실적에 AIDC 성장 모멘텀까지 부각되며 지주사 할인을 축소가 지속될 것이라 판단
	25년	26년	27년																							
매출액	25,184.1	28,661.3	28,133.2																							
영업이익	2,936.1	5,170.1	3,670.0																							
순이익	1,038.1	2,987.6	1,785.1																							
PER (배)	6.7	4.4	7.5																							
의료기기	파마리서치 (214450)	393,000 (8/18일)	+1.9%		(단위: 십억원, 배) <table><thead><tr><th></th><th>25년</th><th>26년</th><th>27년</th></tr></thead><tbody><tr><td>매출액</td><td>536.3</td><td>695.2</td><td>847.7</td></tr><tr><td>영업이익</td><td>214.4</td><td>271.4</td><td>337.5</td></tr><tr><td>순이익</td><td>168.3</td><td>223.1</td><td>274.4</td></tr><tr><td>PER (배)</td><td>28.4</td><td>20.9</td><td>17.1</td></tr></tbody></table>		25년	26년	27년	매출액	536.3	695.2	847.7	영업이익	214.4	271.4	337.5	순이익	168.3	223.1	274.4	PER (배)	28.4	20.9	17.1	- 스킨부스터 리쥬란(아시아/유럽 중심), 화장품(아시아/미국 중심) 수출 고성장으로 하반기에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선반영될 전망, 계절성으로 3분기보다는 4분기 실적을 기대 - 아직 글로벌 스킨부스터 시장은 성장 초기인 만큼 중장기적으로도 성장 여력 높다고 판단 - 화장품 리쥬란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적극 육성 중, 브랜드 로열티 높이며 스킨부스터와의 시너지 기대
	25년	26년	27년																							
매출액	536.3	695.2	847.7																							
영업이익	214.4	271.4	337.5																							
순이익	168.3	223.1	274.4																							
PER (배)	28.4	20.9	17.1																							
반도체	삼성전자 (005930)	239,500 (8/3일)	+17.5%		(단위: 십억원, 배) <table><thead><tr><th></th><th>25년</th><th>26년</th><th>27년</th></tr></thead><tbody><tr><td>매출액</td><td>333,605.9</td><td>738,573.1</td><td>943,801.8</td></tr><tr><td>영업이익</td><td>43,601.1</td><td>390,891.5</td><td>544,670.4</td></tr><tr><td>순이익</td><td>45,206.8</td><td>326,039.6</td><td>447,892.6</td></tr><tr><td>PER (배)</td><td>18.3</td><td>5.9</td><td>4.2</td></tr></tbody></table>		25년	26년	27년	매출액	333,605.9	738,573.1	943,801.8	영업이익	43,601.1	390,891.5	544,670.4	순이익	45,206.8	326,039.6	447,892.6	PER (배)	18.3	5.9	4.2	2H26~2027 실적 컨센서스 상향 가능성 높으며 3Q26 가격 협상이 시장 기대치 상회할 전망. 2027 HBM 가격 협상도 서프라이즈 요인 - 롤링 구조를 포함한 LTA 디테일 공개를 통해 장기 수요 가시성 확보에 대한 신뢰도를 시장에 제공 - 성과금 목적 자사주 매입 및 FCF 50% 근거한 대규모 주주환원 시작 임박 - 경쟁사 대비 높은 수준의 Blended ASP 유지 전망. 내년까지 지속적인 실적 아웃퍼폼 나타날 것
	25년	26년	27년																							
매출액	333,605.9	738,573.1	943,801.8																							
영업이익	43,601.1	390,891.5	544,670.4																							
순이익	45,206.8	326,039.6	447,892.6																							
PER (배)	18.3	5.9	4.2																							
복합기업	삼성물산 (028260)	329,000 (8/3일)	+20.2%		(단위: 십억원, 배) <table><thead><tr><th></th><th>25년</th><th>26년</th><th>27년</th></tr></thead><tbody><tr><td>매출액</td><td>40,742.2</td><td>45,440.9</td><td>48,926.3</td></tr><tr><td>영업이익</td><td>3,292.7</td><td>3,796.4</td><td>4,374.0</td></tr><tr><td>순이익</td><td>3,906.7</td><td>3,873.7</td><td>4,503.0</td></tr><tr><td>PER (배)</td><td>16.9</td><td>23.9</td><td>20.3</td></tr></tbody></table>		25년	26년	27년	매출액	40,742.2	45,440.9	48,926.3	영업이익	3,292.7	3,796.4	4,374.0	순이익	3,906.7	3,873.7	4,503.0	PER (배)	16.9	23.9	20.3	- 올해 관계사 하이테크 수주 가이던스는 6.8조원, 상반기 이미 6.4조원 달성을 완료한 상태 - 현 추세라면 사상 최대 하이테크 수주를 기록했던 2023년 12조원을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25년	26년	27년																							
매출액	40,742.2	45,440.9	48,926.3																							
영업이익	3,292.7	3,796.4	4,374.0																							
순이익	3,906.7	3,873.7	4,503.0																							
PER (배)	16.9	23.9	20.3																							
자동차 부품	HL만도 (204320)	46,900 (8/3일)	+9.8%		(단위: 십억원, 배) <table><thead><tr><th></th><th>25년</th><th>26년</th><th>27년</th></tr></thead><tbody><tr><td>매출액</td><td>9,454.8</td><td>9,835.9</td><td>10,434.2</td></tr><tr><td>영업이익</td><td>357.1</td><td>411.7</td><td>472.1</td></tr><tr><td>순이익</td><td>122.8</td><td>227.4</td><td>275.1</td></tr><tr><td>PER (배)</td><td>27.6</td><td>12.0</td><td>9.8</td></tr></tbody></table>		25년	26년	27년	매출액	9,454.8	9,835.9	10,434.2	영업이익	357.1	411.7	472.1	순이익	122.8	227.4	275.1	PER (배)	27.6	12.0	9.8	- 반도체, 원자재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신형 시장 매출 증가, 전장 믹스 개선으로 수익성 방어에 성공 - 유럽 시장 매출액은 유럽 OEM향 매출 증가하며 역대 최고 분기 매출액 기록 - 하반기 전장 및 로봇 액츄에이터 수주 가능성과 사업 확대 가능성 높아 하반기 부품사 탑픽으로 신규 추천
	25년	26년	27년																							
매출액	9,454.8	9,835.9	10,434.2																							
영업이익	357.1	411.7	472.1																							
순이익	122.8	227.4	275.1																							
PER (배)	27.6	12.0	9.8																							